



학교서 피어난 알록달록 ‘디카시’

효돈중 펴낸 디카시집 ‘찰각, 여기 마음 하나’

2021년부터 5년째 전교생 시 써… 70편 추려

2021년, 서귀포시 효돈중학교에 ‘디카시’라는 씨앗이 뿌려졌다. 디카시는 ‘디지털카메라’와 ‘시(詩)’를 합친 말로, 자연이나 사물에서 포착한 시적 형상을 카메라로 찍은 뒤 5행 이내의 짧은 글을 담아 표현하는 기법이다.

다소 생소했지만 160~170명 남짓한 1~3학년 전교생 모두가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진을 찍고 그 감정을 문자로 담아내기 시작했다. 여기에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들도 ‘디카시’라는 장르에 함께 물들었다. 이렇게 이 학교를 중심으로 피워낸 ‘디카시’는 매년 쌓여 네 권의 디카시집이 나오기까지 이르렀다. 올해도 이 곳의 ‘디카시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다.

최근 발간된 ‘찰각, 여기 마음 하나’는 효돈중 교육가족이 함께 펴낸 디카시집이다. 올해 효돈중 개교 70주년을 기념해 의미있는 작업을 해보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됐다. 해마다 펴낸 네 권의 디카시집에서 70편의 작품을 골라 엮었다. ‘좋은 시’를 모으다가 보단 마음을 움직인 사진과 그 감정이 묻어나게 쓴 시, 진심이 느껴지는 말, 누군가



의 마음에 닿았던 글들을 추려내 담았다.

시집에 담긴 디카시는 무지개처럼 알록달록했다.

‘운동화 끈’이 담긴 사진엔 “내가 먼저 풀어본다/굳게 닫혔던 우리 마음”(고하은의 ‘화해’), ‘불꽃놀이’가 찍힌 사진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꽃/화가 나지만 참을꺼야/한번을 터져도/화려하게 터질거야”(이연주의 ‘사춘기’), ‘고사리’ 사진엔 “두 주먹 불끈 쥐고/가시밭길을 오르다/수없이 꺾여도/그저 묵묵히 살아낸다”(김정미의 ‘길 잃은 빛이 올때까지’), ‘빗물이 맺힌 풀잎’ 사진엔 “비 온 뒤 개구쟁이

물방울들/슬라이드 타러 모여있다/이제 내려간다/야호!”(한지우의 ‘소소한 행복’), ‘피아노 건반’ 사진엔 “남들이 손가락질하며/자신을 짓눌러도/그것을 자신만의 소리로 바꾸어/인생이란 악보를 채워나가는”(강진우의 ‘피아노처럼’), ‘비 갠 하늘 위 무지개’ 사진에는 “하루 종일 눈물을 쏟아가/이젠 관창 아진 듯/다시 미소짓네”(유다현의 ‘웃음꽃’), ‘논 쌓인 나무’ 사진엔 “봄이 되어 있을때/그 집이 녹으면/조금 더 성장하겠지”(홍대영의 ‘시련의 계절’) 등으로 표현했다.

교장으로 부임한 해 ‘디카시’를 교육과정에 도입한 대표 저자인 송미혜 전 효돈중 교장(현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은 “어떤 디카시는 너무 맑고 예뻐서, 또 어떤 디카시는 너무 아파서 마음에 오래 머물렀다”며 이번 디카시집에 의미를 더했다. 이어 “디카시는 아이들에게 쉽게 인문학적 감수성을 불어넣으면서 창의성 함양에도 도움이 되는 과정으로, 아이들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하는 활동”이라며 “이번 정기인사로 자리를 옮기게 돼 아쉬움이 크지만 ‘디카시’라는 씨앗이 더 많은 학교에도 뿌려졌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 김용원의 ‘누구에게나 친구가 필요해’



▲ 고운산의 ‘무제’

제주 장애예술인들이 주는 깊은 울림

장애예술 1세대 작가

특별기획전 ‘미의 역정’

여섯명의 청년 예술가

그림으로 세상 만나다

제주 장애예술인들이 주는 울림이 깊어진다. 장애예술 1세대 작가에 이어 청년 작가들이 전시를 이어간다. 제주 장애예술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하는 특별기획전 ‘미의 역정(美的驛程)’이 이달 6일까지 제주시 원도심에 위치한 예술공간 이아에서 열린다.

커뮤니티아트랩 KOJI(코지)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전시는 고(故) 고운산 작가를 비롯해 곽상필·문정호·백주순·성정자·좌경신 작가 등 제주 장애예술 1세대 작가 6인의 대

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고 고운산 작가는 삶의 역경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킨 발자취를 보여주고, 곽상필 작가는 소외된 이들의 삶을 기록하며 공동체적 가치를 모색한다. 문정호 작가는 죽어가는 것들을 되살리는 행위를 통해 희망을 찾고, 백주순 작가는 ‘힘오와 수치’라는 장애의 본질과 맞서며 존재의 의미를 탐구한다. 성정자 작가는 예술로 공동체의 변화와 조화를 이끌어내고, 좌경신 작가는 욕망없는 빈 마음을 추구하며 자연과 합일하는 구도자의 길을 예술로 보여준다.

신소연 기획자는 “이번 전시는 장애와 예술을 예술 본연의 가치로 바라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제주를 중심으로 연결해 다른 지역의 1세대 장애예술가들의 역정을 조명할 기회 또한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주 발달장애 청년 예술가 6인이

함께하는 기획 전시 ‘그림으로 세상을 만나다’도 이달 6일부터 28일까지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열린다.

서귀포시가 마련한 이번 전시는 작품성을 인정받아 여러 대회에서 수상 경력을 보유한 발달장애 예술가들이 참여해 작품 81점을 두 개의 테마로 선보인다. 참여 작가는 고동우·고수빈·김용원·배주현·이동우·이진원 등 여섯명의 청년 작가들이다.

첫 번째 테마인 ‘특별한 제주展(전)’에서는 제주에 살면서 제주를 그리는 청년작가 4인의 작품 16점을 한 자리에 모았다. 해녀·유채꽃·우도·성산일출봉·돌고래 등 제주를 대표하는 다양한 소재를 각 작가들의 시각과 감성으로 녹여낸 작품들이다. 두 번째 테마인 ‘가지각색 개인展’에서는 동물·인물 자화상·명화 재해석 등 청년 작가 6인의 개성이 담긴 작품 65점이 전시된다. 박소정기자

“영등 들어온 땀 영 놀았주”

칠머리당보존회 7일 축제

제주칠머리당영등굿 보존회는 이달 7일 오후 1시부터 제주시 사라봉에 있는 보존회 전수관에서 ‘영등 WINDY FESTA(윈디 페스타): 사는 게 다 곳이우다’를 연다.

‘영등 들어온 땀 영 놀았주’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영등굿 시연을 비롯해 그림자극 놀이, 영등굿 체험 ‘영등이영 놀젠’, 국악 연희단 하나아트 공연·어울림 놀이 ‘영등바람 난장’, 지구반상도와 함께하는 나눔 장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박소정기자

제주시 누웨마루·칠성로서 “다시, 거리예술제”

매주 금·토 내달 26일까지

제주시는 이달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마다 연동 누웨마루거리와 칠성로 상점가에서 “2025 하반기 거리예술제”를 연다.

이번 거리예술제에는 밴드·대중음악·팝페라·클래식·무용·전통예술 등 다양한 장르의 58개팀이 참여해 공연을 펼친다.

연동 누웨마루거리에선 매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칠성로 상점가에선 매주 토요일 오

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공연이 각각 진행된다.

특히 이달 6일 칠성로상점가에서 열리는 개막공연에서는 제주시합창단과 도내 스트리트 댄스팀 등이 무대를 선보인다. 이어 12일 누웨마루거리에선 디디팔레트의 대중음악 공연과 아리의 팝페라 공연이 마련된다.

공연 일정과 장소 등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제주시 문화예술과(전화 064-728-2714)로 문의하면 된다. 박소정기자

제주아카데미윈드오케스트라 첫 정기연주회

6일 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아카데미윈드오케스트라는 이달 6일 오후 7시 제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제1회 정기연주회를 연다.

‘제주 바람의 어울림’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에서는 허대식의 지휘 아래 65명의 단원들이 박수현의 ‘오돌또기 랩소디’, 슈바르츠의

‘트럼펫 타운(Trumpet Town)’, 반즈의 ‘교향적 서곡(Symphonic Overture)’, 제주 민요 ‘이야홍 타령’, ‘계화 타령’, ‘노영 나영’을 관악 합주로 재해석한 티켈리의 ‘제주 민요(Korean Folksong from Jeju Island)’ 등 한국 창작곡과 세계 현대 관악 레퍼토리를 들려준다. 제주아카데미윈드오케스트라는 제



주관악제페스티벌 오케스트라를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출범한 관악 전문연주단체로 제주에서 성장한 젊은 연주자들로 구성돼 있다. 박소정기자



잘 안들리십니까?
소리샘 디지털 보청기와 함께 하십시오.

본 광고는 사진심의필 2007-GN1-25-0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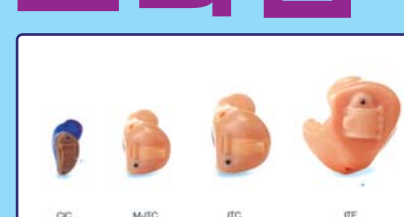
SORISEM 소리샘 보청기
제주시 삼도1동 507-3(2층)
TEL. 753-5347

←광양 → 오라파출소 터미널 신제주 →
한국병원 **소리샘 보청기**

① 소리샘 디지털 보청기는 미국 스타키와 마이크로텍사의 제품을 취급합니다.

② 소리샘 디지털 보청기는 고객의 청력에 적합한 올바른 보청기 상담 및 A/S를 책임집니다.

■ 신경성, 노인성, 소음성 난청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무료 청력검사 및 방문 상담 가능



전국 꽃배달 서비스
제주에는 꽃보라플라워

City Flower
전국 꽃배달 서비스

꽃보라 농장
746-0014, H.P 010-3693-5563
제주시 신광로 8길 3(연동)
제주시 용담2동 721번지

동서양난, 축하, 근조, 각종 관엽식물, 꽃바구니, 꽃다발, 플라워박스, 꽃의 모든것

모든정원, 실내조경, 가정, 별장, 빌딩조경, 연못, 인공폭포, 잔디, 조경수 판매




전화1통화로 꽃배달 OK, 카드결제도 OK (제주시 신광로8길 3) www.boraflower.com